

동국대 발전 기금 기부 잇달아

혜거 스님, 대원상 상금 2000만원 전액 기부
덕문 스님, 법인 발전 위해 3000만원 쾌척

동국대 발전을 위해 스님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혜거 스님은 11월 19일 동국대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스님은 지난 11월 15일 제16회 대원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전달식을 통해 상금 전액을 기부했다.

혜거 스님은 "부처님의 뜻을 전파하며 받은 상인만큼, 불교정신으로 인재를 키워내는 동국대에 상금 전액을 기부하게 됐다"며 "동국대가 '명상 대회' 등으로 수행 불교를 널리 알리고 있어 이에 일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성이 총장은 "불자 교육과 포교에 헌신하신 공로로 받은 귀중한 상금을 이렇게 학교에 희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부금은 불교 인재 양성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동국대 법인 발전을 위한 기금 3000만원을 쾌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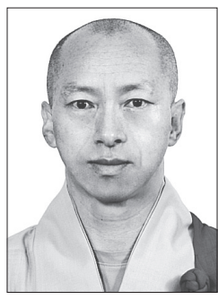
덕문 스님은 11월 20일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열린 학교법인 동국대 제324차 이사회에 앞서 법인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덕문 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의 모든 산하기관과 법인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석전 스님, 부산미술대전 대상

사군자 중 대나무 주제로 출품



수덕사 석전 스님이 제45회 부산미술대전에서 문인화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석전 스님은 문인화 사군자 가운데 대나무를 주제로 출품했으며 지난 11월 19일 대상을 수상했다.

석전 스님은 "사찰의 풍광과 삶을 담아내기에 문인화가 적합하고 어울려 그 정취를 담기 위해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석전 스님은 우담 오동수 선생에게 사사했으며 구례 화엄사에서 출가해 화엄사 교수사, 수덕사 교수사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석전 스님은 한국미술공모대상전 문인화 특선,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부문에서 입선, 부경서도대전 특선, 부산서예전람회 특선 등 수상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부산미술대전은 부산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최대 규모 지역 공모전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중에 받은 사랑, 나눔으로 회향할 것"

Interview

20년 장학금 전달한 김흥국 이사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1월 30일 20회 장학금 전달
어려울 때에도 기부 쉬지 않아
20년 간 1억 3천여 만원 도와
"다문화 가정에도 관심 지속"

"1989년 '호랑나비'로 유명해지고 그간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를 바탕으로 조금씩이라도 나눔을 실천하자고 시작한 장학금 전달이 20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나눔은 계속될 것입니다."

불교를 대표하는 가수이자 방송인 김흥국 씨가 이끄는 '김흥국장학재단'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이를 맞아 김흥국 이사장은 "11월 30일 오후2시 BTN불교TV 무상선원에서 제20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김흥국장학재단은 어린 시절 고생하며 자란 김 이사장이 사회환원을 위해 2000년 2월 창립했다. 그해 11월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이래 매년 11월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

"나름 연예인으로 유명세를 타니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낙산사 홍련암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고."

그렇게 시작한 장학재단 설립과 장학금 전달은 오로지 김 이사장 사재로 진행돼 왔다.

그간 초등학생 228명과 원로가수 15명 등 총 243명에게 1억3000여 만원의 기금이 전달됐다. 개인적 부침이 있어도 나눔은 쉬지 않았다. 지난 2011년 MBC라디오에서 일방적으로 하차 통보를 받고 1인 시위를 할 때도, 최근 무혐의로 결론난 성폭행 논란에도 김 이사장은 장학금 수여는 직접 챙겨 진행했다. 오로지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자라나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저는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감사편지를 하거나 인사를 온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사받고자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이를 계기로 나아가는 인재가 된다면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된다면 그게 저에 대한 보답일 겁니다."

사재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이여서 언제까지 장학금을 줄 수 있을지는 김 이사장 자신도 장담 못한다. 그래도 20주년을 맞는 올해 수여식에는 인원을 늘려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베트남 · 캄보디아 등 다문화가정 아이도 처음 포함됐다.

나누기 위해서라도 그는 본업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를 통해 방송 복귀를 알렸고, 유튜브 채널 '김흥국TV'를 개설하기도 했다.

"'호랑나비'로 유명해지고 그 동안 부처님 가피로 잘 살아왔습니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제가 힘닿을 때까지 장학재단을 운영할 겁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했듯이 제가 받은 사랑은 나눔으로 회향하겠습니다."

"결핵 봉사 30년 도반에 감사를"

미소원, 11월 21일 결핵협회서
제31회 복십자 봉사부문 대상 수상

1989년 11월부터 환자 후원
밑반찬 봉사 등 매월 지원
지속적인 활동 다짐 계기



"30년 동안 결핵 환자 위해 함께 해준 미소원 봉사 도반들이 상을 받아 너무나 기쁩니다. 아픈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저희 미소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 · 사진)이 30년 동안 결핵 환자를 위해 봉사 후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5층에서 열린 대한결핵협회 66주년 기념식에서 복십자 봉사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은 1989년 11월부터 30년 간 국립마산병원에서 결핵으로 입원한 환자를 위한 후원금 및 밑반찬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격리된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장유정 이사장은 "매월 정기 봉사 뿐 아니라 김장 김치와 건강을 위한 수육 등 건강식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자비원 봉사 때부터 미소원 창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해준 도반들이 상을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는 미소원의 봉사 활동으로 환자들이 따뜻한 사회임을 알고 투병의지를 가지며 적극적인 치료 자세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밝혔다.

장유정 이사장은 "다음 달에 또 김장 김치와 수육을 만들어 환자분들을 만나러 간다"며 "앞으로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 곳곳에 저희 미소원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의지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어르신 위한 만발공양

견강암, 11월 20일 고동바위공원서 개최



부산 백양산 견강암(주지 향공)은 11월 20일 모라 고동바위공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만발공양을 진행하고 지역 내 독거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을 위한 쌀 500kg과 장학금을 사상구청에 전달했다.

주지 향공 스님은 "봉사에 함께해주신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산신점안 대재 및 경로잔치

대구 감은사, 11월 17일 개최



대구 감은사(주지 만경)는 11월 17일 산신점안대재 및 경로잔치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만경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산신점안 탱화봉안식에는 도반 대중 스님과 김대근 감은사 신도회장, 신행단체인 죽림회(거사림회) 총불자회, 불교대학, 108순례단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예불, 축원 점안의식 후 진도북춤, 풍악과 함께 참석한 지역 주민과 풍요롭고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26회 불교문화한마당'

진주불교회관, 11월 16일 경남과기대서 진행



사단법인 진주불교회관(이사장 홍수승)은 11월16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본관2층 강당에서 제 26회 불교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보선 스님, 철현 스님 등 대중 스님과 홍수승 이사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불교문화 한마당은 연화사합창단, 보리울림어린이합창단의 음성공양 등으로 이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영가 찾는법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대 상
명리 및 육효초보반, 영가특강반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액)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액)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